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JANUARY
2025 01

SAEROUNQT

새벽예배 설교 한 홍 목사 · 매주 화-토 6:0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우리가 새벽을 기도로 깨워야 하는 이유



새해에 요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나서는 짧지만 그 강렬한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만큼 유명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편 다 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 무섭게 쫓아오셨습니다. 어지간하면 불순종한 요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대신 들어 쓰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지중해 바다 전체를 폭풍으로 뒤집으시면서까지 끝까지 요나로 가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폭풍의 바다와 물고기 뱃속은 무시무시한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 요나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에도,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탈 때에도, 폭풍에 흔들리는 배에서 제비뽑기에 걸렸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습다. 그런 그가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야 기도가 터져 나왔습다. 기도가 깨어났다는 것은 영성이 다시 깨어났다는 뜻입니다. 한때 북이스라엘의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 모두가 존경하던 선지자 요나의 믿음이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삼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요나가 진정으로 부서지고 낮아져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터지기까지 그 정도 시간은 걸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지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터지기 시작한 요나의 기도는 처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3일 동안 컴컴하고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너무 절박하니까 피를 토하듯이 부르짖는 기도했을 것이니 통성기도 했을 것이고, 물고기 뱃속에서는 아무것도 못 먹고 기도했을 것이니 금식기도였을 것이며, 잠깐잠깐 잠들었던 시간 외에 깨어있는 시간은 다 기도했을 것이니 새벽기도이며 철야기도였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나는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필사적인 기도를 다 했을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도였습니다. 요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말을 그의 짧은 기도에서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오래전 솔로몬왕의 성전 봉헌기도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위기의 때에 성전을 향해 기도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역병이 돌든지, 기근이 임하든지, 전쟁에 져서 외국에 포로로 끌려가든지, 어떤 처참한 상황에 빠져있든지 간에 성전을 향해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특히 요나는 성전의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위에는 죄를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어린양의 피가 뿌려집니다. 속죄소 기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후반부로 가면서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께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감사를 선포하고, 서원을 지키겠다는 헌신을 선포하는 담대한 기도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만들지만,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두렵고 불안하던 마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불 같은 기도를 한 뒤에는 단단한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극심한 핍박에 시달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모여 살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고백을 벽에 그림이나 글로 남기곤 했는데, 카타콤 벽에 예수님 다음으로 자주 볼 수 있는 인물이 요나라고 합니다. 물고기 뱃속의 절망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회개기도 하여 살아난 요나를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너무나 불안하고 힘든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요나의 기도를 따라 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새로운교회 담임목사 **한홍**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JANUARY
2025 01

SAEROUN QT

새벽예배 설교 한 홍 목사 · 매주 화-토 6:0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우리가 새벽을 기도로 깨워야 하는 이유



2025.
01

SAEROUN

QT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29	30	31 01	1 신정
5 새가족 125기(1주차)	6	7 05	8 06
12	13	14 10 화요 커피브레이크 개강	15 11
19	20	21 15	22 16
26	27	28	29 설날
~30 일본 비전트립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2 02	3 03	4 04	
9 07	10 08	11 09 SBSB 왕초보성경학교 개강	
16 12	17 13	18 14	12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3 17	24 18	25 19	2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0	31	1	

2025.
01

1	수	[신정] 완전히 새로운 은혜	사 43:18-21
2	목	D-2) 우리가 새벽을 기도로 깨워야 하는 이유	막 6:45-51
3	금	D-3) 에돔이 이스라엘을 거절하다	민 20:14-21
4	토	D-4) 아론의 죽음	민 20:22-29
5	주일	피로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사 40:26-31
6	월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렘 31:23-26
7	화	D-5) 마음이 상한 백성들의 원망	민 21:4-9
8	수	D-6) 낯뻘을 보면 살리라	민 21:4-9
9	목	D-7) 우물물아 솟아나라	민 21:10-18
10	금	D-8) 찬양으로 물이 솟아나게 하다	민 21:16-20
11	토	D-9) 아모리왕 시혼을 정벌하다	민 21:21-32
12	주일	상처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창 50:15-21
13	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10:46-52
14	화	D-10) 바산왕 옥을 정벌하다	민 21:33-35
15	수	D-11) 발람이 발람에도 도움을 청하다	민 22:1-11
16	목	D-12) 발람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민 22:12-20
17	금	D-13) 발람의 나귀가 말하다	민 22:21-33
18	토	D-14)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꾸짖다	민 22:34-40
19	주일	낙망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시 42:1-5
20	월	예수의 생명으로	고후 4:7-12
21	화	D-15)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덮치다	민 25:1-11
22	수	D-16) 이 시대의 비느하스로 일어나라	민 25:12-18
23	목	D-17) 두 번째 인구 조사	민 26:1-4 & 53-56
24	금	D-18) 믿음의 가문들을 축복하심	신 7:9 & 민 26:9-11, 63-65
25	토	D-19) 슬로브한의 딸들	민 27:1-5
26	주일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롬 4:18-24
27	월	약속을 받은 자의 믿음	히 11:17-19
28	화	[설연휴] 성전을 사모하는 가정	시 27:1-6
29	수	[설날] 주께 의지하는 복된 가정	시 84:9-12
30	목	[설연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시 121:1-8
31	금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언약	창 17:18-22

새로운 QT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묵상(경건의 시간, QT)이란

- QT는
01.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02.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03.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훈련입니다.



... 찬양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와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본문 말씀을 2~3회 정도 읽은 후,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묵상(Meditation)과 적용(Application)의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혹은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적용하고 기록하십시오.

... 기도하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 나눔

QT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나의 삶을 순예배에서 순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또한 순예배 가이드를 참고해서 교재로 순예배를 드리고 나누십시오.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가이드

찬양과 기도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내 가족과 이웃, 사회와 나라,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됩니다.

중보기도의 순서

1. 회개

자신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2.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 1)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건강,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 1)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순장, 임직자 및 각 사역 팀장님들 위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확장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선교지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4.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 1)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 외 모든 위정자와 정부 기관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섬김의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2) 이 나라에 건전한 경제 질서의 기반이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정직과 나눔, 청지기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3)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4) 인터넷, 신문, 방송, TV, 잡지 등 모든 언론 매체가 진실에 기반을 두도록 기도합니다.
- 5)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경험되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 6) 부부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순예배시

순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지난주 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받은 내용들에 대해 나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 2)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빈 칸에 적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선교와 사회참여에 관련해 요청된 기도제목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 2) 우리 교회 내 다양한 사역부서들 가운데 매주 부서별로 올라온 기도제목들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01

수

완전히
새로운 은혜

사 43:18-21

- 18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Forget the former things; do not dwell on the past.

- 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만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See, I a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up; do you not perceive it? I am making a way in the wilderness and streams in the wasteland.

- 20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The wild animals honor me, the jackals and the owls, because I provide water in the wilderness and streams in the wasteland, to give drink to my people, my chosen,

- 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the people I formed for myself that they may proclaim my praise.

우리가 새벽을
기도로 깨워야 하는 이유

막 6:45-51

우리가 새벽을 기도로 깨워야 하는 이유

40일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D-2

- 45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새다로 가게 하시고

Immediately Jesus made his disciples get into the boat and go on ahead of him to Bethsaida, while he dismissed the crowd.

- 46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After leaving them, he went up on a mountainside to pray.

- 47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Later that night, the boat was in the middle of the lake, and he was alone on land.

- 48 바람이 거스르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He saw the disciples straining at the oars, because the wind was against them. Shortly before dawn he went out to them, walking on the lake. He was about to pass by them,

- 49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but when they saw him walking on the lake, they thought he was a ghost. They cried out,

- 50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because they all saw him and were terrified. Immediately he spoke to them and said,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 51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Then he climbed into the boat with them, and the wind died down. They were completely amaze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을 거절하다

민 20:14-21

우리가 새벽을 기도로 깨워야 하는 이유

40일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D-3

14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Moses sent messengers from Kadesh to the king of Edom, saying: "This is what your brother Israel says: You know about all the hardships that have come on us.

15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Our ancestors went down into Egypt, and we lived there many years. The Egyptians mistreated us and our ancestors,

16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but when we cried out to the LORD, he heard our cry and sent an angel and brought us out of Egypt.

17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Please let us pass through your country. We will not go through any field or vineyard, or drink water from any well. We will travel along the King's Highway and not turn to the right or to the left until we have passed through your territory."

18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But Edom answered: "You may not pass through here; if you try, we will march out and attack you with the sword."

19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라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The Israelites replied: "We will go along the main road, and if we or our livestock drink any of your water, we will pay for it. We only want to pass through on foot—nothing else."

20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Again they answered: "You may not pass through." Then Edom came out against them with a large and powerful army.

21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Since Edom refused to let them go through their territory, Israel turned away from them.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22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 산에 이르렀더니

The whole Israelite community set out from Kadesh and came to Mount Hor.

- 23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 산에서 모세
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At Mount Hor, near the border of Edom, the LORD said to Moses and Aaron,

- 24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
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므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Aaron will be gathered to his people. He will not enter the land I give the Israelites, because both of you rebelled against my command at the waters of Meribah.

- 25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 산에 올라

Get Aaron and his son Eleazar and take them up Mount Hor.

- 26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Remove Aaron's garments and put them on his son Eleazar, for Aaron will be gathered to his people; he will die there."

- 27 모세가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 산에 오르니라

Moses did as the LORD commanded: They went up Mount Hor in the sight of the whole community.

- 28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
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
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Moses removed Aaron's garments and put them on his son Eleazar. And Aaron died there on top of the mountain. Then Moses and Eleazar came down from the mountain,

- 29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삼십 일 동안 애곡하
였더라

and when the whole community learned that Aaron had died, all the Israelites mourned for him thirty days.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5

주일

피로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사 40:26-31

- 26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 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Lift up your eyes and look to the heavens: Who created all these? He who brings out the starry host one by one and calls forth each of them by name. Because of his great power and mighty strength, not one of them is missing.

- 27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Why do you complain, Jacob? Why do you say, Israel, "My way is hidden from the LORD; my cause is disregarded by my God"?

- 28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Do you not know? Have you not heard? The LORD is the everlasting God, the Creator of the ends of the earth. He will not grow tired or weary, and his understanding no one can fathom.

- 29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He gives strength to the weary and increases the power of the weak.

- 30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even youths grow tired and weary, and young men stumble and fall;

- 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They will soar on wings like eagles; they will run and not grow weary, they will walk and not be faint.

06

월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렘 31:23-26

- 23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the God of Israel, says: "When I bring them back from captivity, the people in the land of Judah and in its towns will once again use these words: 'The LORD bless you, you prosperous city, you sacred mountain.'"

- 24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 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People will live together in Judah and all its towns—farmers and those who move about with their flocks.

- 25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I will refresh the weary and satisfy the faint."

- 26 내가 깨어 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At this I awoke and looked around. My sleep had been pleasant to me.



마음이 상한
백성들의 원망

민 21:4-9

- 4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They traveled from Mount Hor along the route to the Red Sea, to go around Edom. But the people grew impatient on the way;

- 5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they spoke against God and against Moses, and said, "Why have you brought us up out of Egypt to die in the wilderness? There is no bread! There is no water! And we detest this miserable food!"

- 6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Then the LORD sent venomous snakes among them; they bit the people and many Israelites died.

- 7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The people came to Moses and said, "We sinned when we spoke against the LORD and against you. Pray that the LORD will take the snakes away from us." So Moses prayed for the people.

- 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The LORD said to Moses, "Make a snake and put it up on a pole; anyone who is bitten can look at it and live."

- 9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So Moses made a bronze snake and put it up on a pole. Then when anyone was bitten by a snake and looked at the bronze snake, they live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뱀을 보면 살리라

민 21:4-9

- 4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They traveled from Mount Hor along the route to the Red Sea, to go around Edom. But the people grew impatient on the way;

- 5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they spoke against God and against Moses, and said, "Why have you brought us up out of Egypt to die in the wilderness? There is no bread! There is no water! And we detest this miserable food!"

- 6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Then the LORD sent venomous snakes among them; they bit the people and many Israelites died.

- 7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The people came to Moses and said, "We sinned when we spoke against the LORD and against you. Pray that the LORD will take the snakes away from us." So Moses prayed for the people.

- 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The LORD said to Moses, "Make a snake and put it up on a pole; anyone who is bitten can look at it and live."

- 9 모세가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So Moses made a bronze snake and put it up on a pole. Then when anyone was bitten by a snake and looked at the bronze snake, they live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우물물아
숫아나라

민 21:10-18

우리가 새벽을 기도로 깨워야 하는 이유

40일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D-7

- 10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The Israelites moved on and camped at Oboth.

- 11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Then they set out from Oboth and camped in Iye Abarim, in the wilderness that faces Moab toward the sunrise.

- 12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From there they moved on and camped in the Zered Valley.

- 13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 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They set out from there and camped alongside the Arnon, which is in the wilderness extending into Amorite territory. The Arnon is the border of Moab, between Moab and the Amorites.

- 14 이러므로 여호와와 전쟁기에 일렸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That is why the Book of the Wars of the LORD says: "...Zahab in Suphah and the ravines, the Arnon

- 15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을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and the slopes of the ravines that lead to the settlement of Ar and lie along the border of Moab."

- 16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From there they continued on to Beer, the well where the LORD said to Moses, "Gather the people together and I will give them water."

- 17 그 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숫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Then Israel sang this song: "Spring up, O well! Sing about it,

- 18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뚫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about the well that the princes dug, that the nobles of the people sank—the nobles with scepters and staffs." Then they went from the wilderness to Mattanah,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찬양으로
물이 솟아나게 하다

민 21:16-20

우리가 새벽을 기도로 깨워야 하는 이유

40일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D-8

- 16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From there they continued on to Beer, the well where the LORD said to Moses, "Gather the people together and I will give them water."

- 17 그 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 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Then Israel sang this song: "Spring up, O well! Sing about it,

- 18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뚫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about the well that the princes dug, that the nobles of the people sank—the nobles with scepters and staffs." Then they went from the wilderness to Mattanah,

- 19 맛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from Mattanah to Nahaliel, from Nahaliel to Bamoth,

- 20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and from Bamoth to the valley in Moab where the top of Pisgah overlooks the wastelan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1

토

아모리왕 시혼을
정벌하다

민 21:21-32

21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
어 이르되

22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
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
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
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길로만 지나가리이
다 하나

23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
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
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24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까지 점령하여 압
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압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25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26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
혼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
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27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
으로 올지어다 시혼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
지어다

28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혼의 성에서 화염
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
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29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
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
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30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
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31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32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셀을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 곳에 있던 아모
리인을 몰아 내었더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2

주일

상처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창 50:15-21

- 15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When Joseph's brothers saw that their father was dead, they said, "What if Joseph holds a grudge against us and pays us back for all the wrongs we did to him?"

- 16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So they sent word to Joseph, saying, "Your father left these instructions before he died:

- 17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Joseph: I ask you to forgive your brothers the sins and the wrongs they committed in treating you so badly.' Now please forgive the sins of the servants of the God of your father." When their message came to him, Joseph wept.

- 18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His brothers then came and threw themselves down before him. "We are your slaves," they said.

- 19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But Joseph said to them, "Don't be afraid. Am I in the place of God?"

- 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You intended to harm me, but God intended it for good to accomplish what is now being done, the saving of many lives.

- 21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So then, don't be afraid. I will provide for you and your children." And he reassured them and spoke kindly to them.

13

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10:46-52

46 그들이 예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Then they came to Jericho. As Jesus and his disciples, together with a large crowd, were leaving the city, a blind man, Bartimaeus (which means "son of Timaeus"), was sitting by the roadside begging.

47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When he heard that it was Jesus of Nazareth, he began to shout,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48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Many rebuked him and told him to be quiet, but he shouted all the more,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49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Jesus stopped and said, "Call him." So they called to the blind man, "Cheer up! On your feet! He's calling you."

50 맹인이 겹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Throwing his cloak aside, he jumped to his feet and came to Jesus.

51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Jesus asked him. The blind man said, "Rabbi, I want to see."

52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Go," said Jesus, "your faith has healed you." Immediately he received his sight and followed Jesus along the road.



바산왕 옥을 정벌하다

민 21:33-35

33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
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
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Then they turned and went up along the road
toward Bashan, and Og king of Bashan and his whole
army marched out to meet them in battle at Edrei.

3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
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
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
할지니라

The LORD said to Moses, "Do not be afraid of him,
for I have delivered him into your hands, along with
his whole army and his land. Do to him what you
did to Sihon king of the Amorites, who reigned in
Heshbon."

35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
였더라

So they struck him down, together with his sons and
his whole army, leaving them no survivors. And they
took possession of his lan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발락이 발람에도
도움을 청하다

민 22:1-11

우리가 새벽을 기도로 깨워야 하는 이유

40일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D-11

1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2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3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4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던라

5 그가 사신을 브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6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거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압이니라

7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8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9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10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11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발람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민 22:12-20

우리가 새벽을 기도로 깨워야 하는 이유

40일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D-12

- 12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But God said to Balaam, "Do not go with them. You must not put a curse on those people, because they are blessed."

- 13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The next morning Balaam got up and said to Balak's officials, "Go back to your own country, for the LORD has refused to let me go with you."

- 14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So the Moabite officials returned to Balak and said, "Balaam refused to come with us."

- 15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Then Balak sent other officials, more numerous and more distinguished than the first.

- 16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They came to Balaam and said: "This is what Balak son of Zippor says: Do not let anything keep you from coming to me,

- 17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because I will reward you handsomely and do whatever you say. Come and put a curse on these people for me."

- 18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 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But Balaam answered them, "Even if Balak gave me all the silver and gold in his palace, I could not do anything great or small to go beyond the command of the LORD my God.

- 19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Now spend the night here so that I can find out what else the LORD will tell me."

- 20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That night God came to Balaam and said, "Since these men have come to summon you, go with them, but do only what I tell you."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발람의 나귀가 말하다

민 22:21-33

우리가 새벽을 기도로 깨워야 하는 이유

40일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D-13

21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22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므로
여호와와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23 나귀가 여호와와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
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
질하니

24 여호와와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25 나귀가 여호와와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
찍질하니

26 여호와와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27 나귀가 여호와와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
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
리는지라

28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
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29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
으리라

30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
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
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
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31 그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
호와와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32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
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
고 나왔더니

33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
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
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여호와와 사자가 발람을 꾸짖다

민 22:34-40

우리가 새벽을 기도로 깨워야 하는 이유

40일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D-14

- 34 발람이 여호와와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 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Balaam said to the angel of the LORD, "I have sinned. I did not realize you were standing in the road to oppose me. Now if you are displeased, I will go back."

- 35 여호와와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The angel of the LORD said to Balaam, "Go with the men, but speak only what I tell you." So Balaam went with Balak's officials.

- 36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When Balak heard that Balaam was coming, he went out to meet him at the Moabite town on the Arnon border, at the edge of his territory.

- 37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였느냐

Balak said to Balaam, "Did I not send you an urgent summons? Why didn't you come to me? Am I really not able to reward you?"

- 38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Well, I have come to you now," Balaam replied. "But I can't say whatever I please. I must speak only what God puts in my mouth."

- 39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트후셋에 이르러 서는

Then Balaam went with Balak to Kiriath Huzoth.

- 40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Balak sacrificed cattle and sheep, and gave some to Balaam and the officials who were with him.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9

주일

낙망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시 42:1-5

- 1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As the deer pants for streams of water, so my soul pants for you, my God.

- 2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을까

My soul thirsts for God, for the living God. When can I go and meet with God?

- 3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My tears have been my food day and night, while people say to me all day long, "Where is your God?"

- 4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These things I remember as I pour out my soul: how I used to go to the house of God under the protection of the Mighty One with shouts of joy and praise among the festive throng.

- 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Why, my soul, are you downcast? Why so disturbed within me? Put your hope in God, for I will yet praise him, my Savior and my God.

20

월

예수의
생명으로

고후 4:7-12

-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But we have this treasure in jars of clay to show that this all-surpassing power is from God and not from us.

- 8 우리가 사방으로 옥여쌈을 당하여도 쓰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We are hard pressed on every side, but not crushed; perplexed, but not in despair;

- 9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persecuted, but not abandoned; struck down, but not destroyed.

- 10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잡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We always carry around in our body the death of Jesus, so that the life of Jesus may also be revealed in our body.

- 11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잡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For we who are alive are always being given over to death for Jesus' sake, so that his life may also be revealed in our mortal body.

- 12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So then, death is at work in us, but life is at work in you.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덮치다

민 25:1-11

우리가 새벽을 기도로 깨워야 하는 이유

40일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D-15

- 1 이스라엘이 싯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While Israel was staying in Shittim, the men began to indulge in sexual immorality with Moabite women,

- 2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who invited them to the sacrifices to their gods. The people ate the sacrificial meal and bowed down before these gods.

- 3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So Israel yoked themselves to the Baal of Peor. And the LORD's anger burned against them.

- 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The LORD said to Moses, "Take all the leaders of these people, kill them and expose them in broad daylight before the LORD, so that the LORD's fierce anger may turn away from Israel."

- 5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So Moses said to Israel's judges, "Each of you must put to death those of your people who have yoked themselves to the Baal of Peor."

- 6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Then an Israelite man brought into the camp a Midianite woman right before the eyes of Moses and the whole assembly of Israel while they were weeping at the entrance to the tent of meeting.

- 7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When Phinehas son of Eleazar, the son of Aaron, the priest, saw this, he left the assembly, took a spear in his hand

- 8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and followed the Israelite into the tent. He drove the spear into both of them, right through the Israelite man and into the woman's stomach. Then the plague against the Israelites was stopped;

- 9 그 염병으로 죽은 자가 이만 사천 명이었던라 but those who died in the plague numbered 24,000.

-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The LORD said to Moses,

- 11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Phinehas son of Eleazar, the son of Aaron, the priest, has turned my anger away from the Israelites. Since he was as zealous for my honor among them as I am, I did not put an end to them in my zeal.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이 시대의
비느하스로 일어나라

민 25:12-18

우리가 새벽을 기도로 깨워야 하는 이유

40일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D-16

- 12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Therefore tell him I am making my covenant of peace with him.

- 13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He and his descendants will have a covenant of a lasting priesthood, because he was zealous for the honor of his God and made atonement for the Israelites."

- 14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The name of the Israelite who was killed with the Midianite woman was Zimri son of Salu, the leader of a Simeonite family.

- 15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And the name of the Midianite woman who was put to death was Kozbi daughter of Zur, a tribal chief of a Midianite family.

-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The LORD said to Moses,

- 17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Treat the Midianites as enemies and kill them.

- 18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브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브올의 일로 염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They treated you as enemies when they deceived you in the Peor incident involving their sister Kozbi, the daughter of a Midianite leader, the woman who was killed when the plague came as a result of that incident."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두 번째
인구 조사

민 26:1-4, 53-56

- 1 열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After the plague the LORD said to Moses and Eleazar son of Aaron, the priest,

- 2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이십 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Take a census of the whole Israelite community by families—all those twenty years old or more who are able to serve in the army of Israel."

- 3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So on the plains of Moab by the Jordan across from Jericho, Moses and Eleazar the priest spoke with them and said,

- 4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이십 세 이상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Take a census of the men twenty years old or more, as the LORD commanded Moses." These were the Israelites who came out of Egypt:

- 53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The land is to be allotted to them as an inheritance based on the number of names.

- 54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To a larger group give a larger inheritance, and to a smaller group a smaller one; each is to receive its inheritance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ose listed.

- 55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Be sure that the land is distributed by lot. What each group inherits will be according to the names for its ancestral tribe.

- 56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Each inheritance is to be distributed by lot among the larger and smaller group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믿음의 가문들을 축복하심

신 7:9 & 민 26:9-11, 63-65

[신 7:9]

- 9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나눔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Know therefore that the LORD your God is God; he is the faithful God, keeping his covenant of love to a thousand generations of those who love him and keep his commandments.

[민 26:9-11, 63-65]

- 9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
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and the sons of Eliab were Nemuel, Dathan and Abiram. The same Dathan and Abiram were the community officials who rebelled against Moses and Aaron and were among Korah's followers when they rebelled against the LORD.

- 10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이백오십 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The earth opened its mouth and swallowed them along with Korah, whose followers died when the fire devoured the 250 men. And they served as a warning sign.

- 11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The line of Korah, however, did not die out.

- 63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These are the ones counted by Moses and Eleazar the priest when they counted the Israelites on the plains of Moab by the Jordan across from Jericho.

- 64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Not one of them was among those counted by Moses and Aaron the priest when they counted the Israelites in the Desert of Sinai.

- 65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
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음이
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For the LORD had told those Israelites they would surely die in the wilderness, and not one of them was left except Caleb son of Jephunneh and Joshua son of Nun.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슬로브핫의
딸들

민 27:1-5

- 1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
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The daughters of Zelophehad son of Hephher, the
son of Gilead, the son of Makir, the son of Manasseh,
belonged to the clans of Manasseh son of Joseph. The
names of the daughters were Mahlah, Noah, Hoglah,
Milkah and Tirzah. They came forward

- 2 그들이 회막 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and stood before Moses, Eleazar the priest, the leaders
and the whole assembly at the entrance to the tent of
meeting and said,

- 3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
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Our father died in the wilderness. He was not among
Korah's followers, who banded together against the
LORD, but he died for his own sin and left no sons.

- 4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Why should our father's name disappear from his clan
because he had no son? Give us property among our
father's relatives."

- 5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So Moses brought their case before the LOR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6

주일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롬 4:18-24

- 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Against all hope, Abraham in hope believed and so became the father of many nations, just as it had been said to him, “So shall your offspring be.”

- 19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Without weakening in his faith, he faced the fact that his body was as good as dead—since he was about a hundred years old—and that Sarah’s womb was also dead.

-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Yet he did not waver through unbelief regarding the promise of God, but was strengthened in his faith and gave glory to God,

-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 하였으니

being fully persuaded that God had power to do what he had promised.

- 22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This is why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 23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The words “it was credited to him” were written not for him alone,

- 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but also for us, to whom God will credit righteousness—for us who believe in him who raised Jesus our Lord from the dead.

27

월

약속을
받은 자의 믿음

히 11:17-19

- 17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By faith Abraham, when God tested him, offered Isaac as a sacrifice. He who had embraced the promises was about to sacrifice his one and only son,

- 18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even though God had said to him, "It is through Isaac that your offspring will be reckoned."

- 19 그가 하나님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Abraham reasoned that God could even raise the dead, and so in a manner of speaking he did receive Isaac back from death.



28

화

성전을 사모하는
가정

시 27:1-6

- 1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와 내 생명의 능
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whom shall
I fear? The LORD is the stronghold of my life— of
whom shall I be afraid?

- 2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
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When the wicked advance against me to devour me,
it is my enemies and my foes who will stumble and
fall.

- 3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
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Though an army besiege me, my heart will not fear;
though war break out against me, even then I will be
confident.

- 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
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집에 살
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
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One thing I ask from the LORD, this only do I seek: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gaze on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seek him in his temple.

- 5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For in the day of trouble he will keep me safe in his
dwelling; he will hide me in the shelter of his sacred
tent and set me high upon a rock.

- 6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
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
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Then my head will be exalted above the enemies
who surround me; at his sacred tent I will sacrifice
with shouts of joy; I will sing and make music to the
LORD.

29

수

주께 의지하는
복된 가정

시 84:9-12

- 9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피 보옵소서

Look on our shield, O God; look with favor on your anointed one.

- 10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 오니

Better is one day in your courts than a thousand elsewhere; I would rather be a doorkeeper in the house of my God than dwell in the tents of the wicked.

- 11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 니이다

For the LORD God is a sun and shield; the LORD bestows favor and honor; no good thing does he withhold from those whose walk is blameless.

- 12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LORD Almighty, blessed is the one who trusts in you.

30

목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시 121:1-8

-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I lift up my eyes to the mountains—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 2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My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 3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He will not let your foot slip— he who watches over
you will not slumber;

- 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
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indeed, he who watches over Israel will neither
slumber nor sleep.

- 5 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The LORD watches over you— the LORD is your
shade at your right hand;

- 6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the sun will not harm you by day, nor the moon by
night.

- 7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
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The LORD will keep you from all harm— he will
watch over your life;

- 8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the LORD will watch over your coming and going
both now and forevermore.

31

금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언약

창 17:18-22

18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
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And Abraham said to God, "If only Ishmael might live
under your blessing!"

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
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
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Then God said, "Yes, but your wife Sarah will bear you
a son, and you will call him Isaac.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with him as an everlasting covenant for his
descendants after him.

20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
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
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And as for Ishmael, I have heard you: I will surely bless
him; I will make him fruitful and will greatly increase
his numbers. He will be the father of twelve rulers,
and I will make him into a great nation.

21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
을 이삭과 세우리라

But my covenant I will establish with Isaac, whom
Sarah will bear to you by this time next year."

22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with Abraham, God
went up from him.



2024 송구영신예배

01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 4:10-23)

설교 | 한 흥 목사

일시 | 12월 31일(화) 오후 6시, 오후 8시 30분, 오후 11시

장소 | 새로운교회 본당



2024-2025 송구영신예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 4:10-23

-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
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
가 없었느니라

I rejoiced greatly in the Lord that at last you renewed
your concern for me. Indeed, you were concerned,
but you had no opportunity to show it.

-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I am not saying this because I am in need, for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whatever the circumstances.

-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
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
웠노라

I know what it is to be in need, and I know what it
is to have plenty.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tion, whether well fed
or hungry, whether living in plenty or in want.

-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 14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
니 잘하였도다

Yet it was good of you to share in my troubles.

- 15 빌립보 사람들이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
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
었느니라

Moreover, as you Philippians know, in the early days
of your acquaintance with the gospel, when I set out
from Macedonia, not one church shared with me in
the matter of giving and receiving, except you only;

- 16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for even when I was in Thessalonica, you sent me aid
more than once when I was in need.

- 17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Not that I desire your gifts; what I desire is that more
be credited to your account.

2024-2025 송구영신예배



- 18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
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
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I have received full payment and have more than
enough. I am amply supplied, now that I have
received from Epaphroditus the gifts you sent.
They are a fragrant offering, an acceptable sacrifice,
pleasing to God.

- 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
우시리라

And my God will meet all your need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lory in Christ Jesus.

- 20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To our God and Father be glory for ever and ever.
Amen.

- 2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
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Greet all God's people in Christ Jesus. The brothers
and sisters who are with me send greetings.

- 22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
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All God's people here send you greetings, especially
those who belong to Caesar's household.

- 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
을지어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r spirit.
Amen.



개인기도제목 - 1주차

[illegible]

 개인기도제목 - 2주차

[illegible]



개인기도제목 - 3주차

[illegible]

개인기도제목 - 4주차

[illegible]

2025.
01

겨울성령부흥집회 간증

02

1. 정소연A 성도 (강북공동체)
2. 권광호 집사 (S서초공동체)
3. 박지윤A 성도 (E서초공동체)



사랑의 추적자 되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소연A 성도 (강북공동체)



부흥회는 언젠가부터 우리 부부에게 가슴 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있었고, 도전이 있었고, 위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도 많은 기대 가운데 참석하였습니다. 특별히 시부모님도 초대

하여 함께 드리는 시간으로 더욱 뜻깊었습니다.

니스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던 요나가 바다에 빠진 것은 죽음이 아닌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패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열심을 다했던 첫 직장에서 승진이 누락되고 태중에 아이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자 저는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에게 배신당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그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잊고 살 때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저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그 힘에 압도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제 삶에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가 저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기다리신 사랑의 추적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임을 깨달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요나처럼 하나님께 서원한 후 도망가고 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어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떠올랐고 그것을 위해 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실 거야라고 말만 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자라는 약속을 여러 핑계를 대며 매번 미루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가정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마음으로 강하게 주셨습니다.

부흥회가 끝난 후 우리 가정은 토요일마다 가정예

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7살, 4살 아들들과 함께 둘러앉아 첫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함께 듣고,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가 좋아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돌아가며 함께 기도를 하며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임을 느꼈습니다.

다음 하나는 재정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24년은 저희 가족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으며 가장 따뜻하고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 근처로 저의 직장 집 다 옮기시고 알게 된 남편의 뇌종양 진단은 너무 충격적이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작년 부흥회와 특새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1년의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은 외롭지 않게 치료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사랑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작년 특새기간 기도하며 저도 모르게 서원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받은 첫 성과급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요.

남편은 아파서 1년 반 육아휴직 중이며, 이사를 하며 받은 우리에게 너무 부담이 되는 대출금까지 매달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데, 작년 특새기간 동안 재정의 채우심을 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1년간 치료의 시간 동안 쌓여가는 마이너스를 보며 “하나님 내년엔 성과급이 나와야 이 마이너스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못 드릴 것 같아요..”하는 마음이 제게 늘 불편하게 자리했습니다. 1년 동안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과 피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요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런 제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러셨고, 이후도 우리는 당신 안에서 안전합니다. 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시고 사랑의 추적자 되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요나가 되어 하나님 역사의 증인이 되어라

권광호 집사 (S서초공동체)



하나님! 니스웨를 구원하시고자 요나를 선택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요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었고, 그 악독이 하나님 앞까지 상달된 니스웨도 용서하셨습니다. 설교를 듣다 보니 요나의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요나를 보내 주셨고, 제가 가야 할 목적지 니스웨를 주셨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저를 추적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 시절 초코파이의 유혹으로 시골교회 성탄절 연극의 요셉으로 저를 처음으로 교회에 부르셨고, 고등학교와 대학을 미션스쿨에서 다니게 하시면서 이단 교회의 친구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도 하시면서 저의 인생에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미련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대학 때 만난 절친을 통해 15년이나 기도하게 하시더니 드디어 그 친구의 첫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저를 만나주시자마자 또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니스웨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목적지였다면 그 동안 제게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일찍 일어나야 하는 시골 시간의 습관과 창조하신 자연을 경험하게 하였고, 제 옆의 여러 사람들이 제게 보내주신 요나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소꿉친

구, 때로는 영적 아버지로 때로는 선배였던 순장님, 힘들게 하는 회사 동료, 저를 교회로 인도한 개척교회 목사였던 친구, 제 인생의 동반자이자 믿음의 동역자인 아내, 저와 새로운교회로 출석하기로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던 수영장 강사, 동네에서 교제할 수 있는 목사님이 요나였으며 별 볼 일 없는 한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귀한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요나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겨울성령부흥집회에서 한 홍 목사님을 요나로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요나가 되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의 증인이 되어라’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니스웨가 회개를 한 것처럼 제가 회개를 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여러 날이 지난 지금 저는 회사에서 정계를 받고 저의 일터가 니스웨였고, 저의 일터가 요나가 회개했던 물고기 뱃속임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무너지고 3일째 되던 주일날, 교회 사역의 현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앞서 가던 저를 멈춰 서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방법과 성령의 지혜로 일하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제 막 회개의 한 마디가 터져 나왔는데 하나님은 저를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부흥회에 목발 짚고 혼자 찾아온 중2 딸과 교회 가자는 말에 군말 없이 따라나서는 사회 초년생 큰 집 조카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의 추적자이심을 믿습니다.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박지윤A 성도 (E서초공동체)



2023년 8월, 폭풍처럼 불어 닥친 민사소송은 2024년까지 이어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40일 특별 새벽기도회와 함께 올해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10년 가까이 친

정가족들을 괴롭히고 영적으로 묶고 숨조차 못 쉬게 했던 악성 채무 소송은 주님의 때에 24년 2월 7일에 마무리시켜 주셨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저에게 닥친 또 다른 것은 고3이 된 딸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 후 집에 와서 자는 딸을 위해 손을 얹고 작은 소리로 기도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확확 저어 가며 거부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잠잠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직 믿음도 작은 딸에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과 기도를 프린트해서 책상에 붙여주었습니다. 잘 때마다 한 번씩 읽고 자라고 했는데, 실천했는지 여부는 주님만 아십니다.

큰 소송을 대응하기 위해 매일 2시간 가까이 골방기도를 하면서 허리 디스크 3,4,5번이 찢어져 큰 고통가운데 지냈습니다. 제 체력으로 는 고 3인 딸을 위해 뭔가 더 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새벽기도, 일주일 금식기도를 하며 아이를 위해 주님께 묵묵히 간구하였습니다. 소송 때문에 고2 때부터 고3 때까지 돌봐주지 못

한 미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내신이 약해서 수험만 시험을 보는 수리논술만 준비를 하였고 6개 대학에 수시 접수를 하였습니다. 순 모임 때마다 저의 기도제목 중 아이가 수능과정을 통해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을 믿게 해 달라는 것, 남편이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이었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넉넉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수능 당일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어 바로 수능 기도회에 참석하였고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아이와 마주하였는데 아이 안색이 좋지 않았고 가채점을 해보니 고등학교 3년 접수 중 최악의 점수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종일 주님과 대화하고 와서인지 딸에게 성내기보다는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엄마는 주님의 역사를 믿는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웬지 그날 밤은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저 먼 지방으로 처음 듣는 과로 점수를 맞추어 보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아팠습니다. 그러나 제 입에서는 감사함이 넘쳐났고 반면 제 눈에서 나온 눈물은 베개를 흥건히 적셔 놓았습니다.

회사일과 자격증 시험에 바빴던 아빠조차 둘째가 갈 수 있는 대학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무너졌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그렇게 남편의 눈물의 기도를 참 오랜만에 들었

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부흥회.. 딸에게 부흥회에 꼭 같이 가자고 부탁을 했고 저는 4부 중보팀에 있기에 좀 더 일찍 가서 기도하며 남편과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매년 기대되었던 부흥회가 시작되었고 요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어느 때보다 목사님이 쏟아낸 말씀들이 저에게 살아 움직이며 저의 혼과 영과 관절을 쫓아왔습니다. 집에 가서 요나 1장에서 4장까지 계속 묵상해 하였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부흥회 날 남편은 철저한 회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갔고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이 아이에게 믿음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라고... 그렇게 뜨겁고 감사한 부흥회를 마치었습니다. 드디어, 12월 13일 수시 발표 날, 저는 마음을 비운 채 집안일

을 하였고 남편에게서 한통의 전화가 다급하게 왔습니다. 인서울 한 곳에 합격했다고. 수리논술을 쓴 6개 대학이 모두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딱 한 대학을 남겨 두셨던 것입니다. 그곳은 3명만 뽑아서 기대를 못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여보, 주님은 살아계셔. 주님이 역사해 주셨어.” 그 울먹이는 소리를 듣는 순간, 떠오르는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매일 먹으며, 기도하며, 동행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더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다 보면 가장 합당한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듣고 돌보신다는 것을 선포하며 이 간증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그 귀한 손 위에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2025.
01

입교 및 세례자 간증

03

1. 최지민B 학생 (뉴젠 YEM)
2. 이희창 집사 (S서초공동체)
3. 김세람 성도 (E서초공동체)
4. 송주연 성도 (W서초공동체)

저를 은혜로 택해 주신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최지민B 학생 (뉴젠 YEM)



저는 모태신앙 청소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늘 걱정이 많고 불안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 때 안과 검진을 받았는데 검

사결과 간헐적 사시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덜컥 불안해졌고 무서웠습니다. 집에서 매일 사시치료를 위해 노력을 했고 부모님께서도 매일 이 부분에 대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셔서 나를 치료해 주실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너무 두려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엄마는 두려워하지 말라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학생 1학년 YEM 겨울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때라 줌을 통해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환경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저녁 집회 때 찬양을 부르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고, 마음이 벅차면서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며 살았던 저의 모습이 부끄러워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도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새로운교회 청소년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40일 특새를 통해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는 삶을 체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름, 겨울 부흥회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YEM 수련회를 통해 일 년 중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주 YEM 예배를 통해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고 있고 예배는 제 삶의 부스러입니다. 저는 YEM 예배에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것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학기마다 하는 편편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여름 인도네시아 단기선교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책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죄의 길로 빠질 때가 많은 연약한 청소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저를 항상 사랑하시고, 제가 주께 다시 돌아갈 때 면을 웃으며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제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그려 주신 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은혜로 택해 주신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테오를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이희창 집사 (S서초공동체)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울며 기도하고 잠들곤 했습니다. 기도의 주된 내용은 “우리 엄마, 아빠 영원토록 살게 해 주세요”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는 그때의 부모님보다 다섯 살이 더 많은 나이로 이제 아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보다 먼저 아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은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 같이 기쁘고 자유했으며 행복했습니다. 둘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데 자녀가 있어야 할까 대화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부부의 공통적인 생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서로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을 자녀에게 소개하고 알려주며 경험케 하여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년 전, 한 번의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자녀를 달라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날 더케이호텔 빈 공간에서 배란자사를 놓았고, 올해 다니엘 금식 첫날 인공수정을 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3일 토요일 특별새벽기도회 중, 한 흥 담임목사님께서 자녀를 달라 기도하는 가정들을 향해 “이제 태의 문이 열렸으니 사랑으로 키우십시오”라고 선포해 주

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멘으로 받았고 주셨다 믿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반드시 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녀를 달라는 마음속 외침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도 아내도 많은 것들을 오랫동안 기다려 온 삶이었지만 돌이켜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간구를 채워주셨습니다. 유산 이후 아내는 TV를 끊고 1년간 100여 권의 책을 읽으며 사색과 기도를 통해 엄마의 마음을 키웠고, 저는 LTS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며 아빠로서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CES 멘토님을 비롯하여 멘티님들, 한 흥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교역자분들, 함께 LTS를 수료한 많은 집사님들, 뉴젠 초등2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또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 가운데 테오는 새로운교회의 생일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 테오는 그리스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중보 속에 태어난 테오를 이제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다음 세대 믿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믿음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김세람 성도 (E서초공동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삶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다시 하려면 정말 못하겠습니

다. 자신에게 매우 혹독했습니다. 매번 평가받고 살아남아야 하는 사회생활이었습니다. 들어가는 커리어와는 다르게 건강은 나빠지고, 마음은 나날이 공허해졌고, 건강이 나빠진 저에게는 화가 나고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결국은 놓아버렸습니다. 후회 없이 산 10년이었지만, 저는 놓아버린 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조금 더 버텨야지, 그것도 못 참냐. 아무래도 다시 해야겠어’하는 후회의 마음들이 저를 당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에 중독된 사람처럼 세상의 인정을 위해 열심히 또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 헤매고 다녔습니다. 저는 정말로 저를 진정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카자흐스탄 친구들의 가이드와 통역을 하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형외과-피부과-치과-미용실-한국의 대형교회였습니다. 카자흐스탄 친구들을 위해 교회를 가게 되는 신기한 상황이 자주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간 교회는 문

턱이 너무 높게만 느껴졌습니다. 부담스럽고 너무 압도적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마음에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아직 축복받고 은혜받을 자격이 안 된다. 조용히 집에서 성경책 읽자’하며 교회의 대한 마음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딸아이 어린이집에 이제 막 같은 반이 된 학부모 언니를 보고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혹시 근처에 좋은 교회 아시는 데 있으세요?” 크리스천인지 묻지도 않고 그냥 정말 이렇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언니의 표정은 “어라!? 요것 봐라.. 오호!!! 너 아주 잘 걸렸다” 하는 표정으로 저를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제대로 물어보았습니다. 언니는 새로운교회에 챔버팀 플루티스트 자매님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새로운교회로 오게 되었고, 그날 목사님께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시며, “아무 고구마에 젓가락을 막 찌르면 안 된다. 옆에 잘 익은 고구마가 오면 젓가락을 살짝만 갖다 대도 푹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 같아서 예배 동안 계속 웃음이 나왔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다니며, 저의 삶은 간결해지고 단순해졌습니다. 진짜 힘들 곳과 힘을 빼야 하는

곳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향은 하지만 빠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진정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전의 잘못과 후회를 눈물로 회개하고 저만 아는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아주 유치한 시시콜콜한 것까지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지 못한 것들도 기도 중에 “아 맞다” 하면서 다시 생각이 나면 또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땀을 짖 땀 운동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개 이후에는 마음에 감사가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 너무나 당연한 것들, 공기, 사계절, 낙엽, 바람, 길거리, 가로등, 부모님, 시부모님, 신랑, 딸아이, 햇살, 오늘 하루, 순원 분들, 목사님 또 우리 교회까지 온통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정말 큰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회개와 신앙의 시작인 세례를 시작으로 더 당당히 크리스천임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잘 이끌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순원 분들. 아직 답답함과 믿음의 어려움이 있는 저에게 좋은 배움의 시스템과 순 생활을 만들어 주신 목사님께,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기름 부으신 성령의 교회, 새로운교회로 불러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 붙들어 잡고 매달려 질질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믿음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긴 여정의 끝에 확실하고 정확하게 있는 쫓대를 향하여 달리고 싶습니다. 정말 긴 마라톤의 과정일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길, 무거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길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옛 것은 벗어버리고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고 적극적 섬김을 위해 대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의 향공모함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신앙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매 순간 귀하고 감사하며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산도 괜찮아’가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아’입니다

송주연 성도 (W서초공동체)



30대 중반을 치료로 보내야 했던 제게 임신은 오랜 시간 간절히 소망하지만 저의 상황상 넘을 수 없는 답답하고 큰 벽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래서 마흔셋 적지 않은 나이에 처음으로 아기가 찾아왔을 때 그리고는 8주 만에 유산 되었을 때의 저의 슬픔은 처음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놀라움만큼 크고 깊었습니다. “나의 딸이 낙심치 않고 평강의 강을 흘러 보내기 원한다. 네가 8주 동안 품었던 그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만큼 클진대 나는 네가 모태에서부터 지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너를 품어왔다.”

주님 안에서 제 슬픈 마음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하고 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지체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제가 아기를 잃은 일에 대해 오랫동안 저도 모르는 깊은 낙심을 품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낙심이 죄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놀라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위로로 저를 지켜보시고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만져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저희에게 아기를 주실 것인지 아닌지가 저는 가장 궁금했지만 하나님

은 그저 ‘내가 너를 너무나 아낀다’라는 그 말씀만 계속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한해 한해가 가고 아기문제는 기도제목에서도 제외되는 나이가 되었을 때, 평강이 흘러야 할 제 마음 안에는 그때 찾아왔던 기회가 마치 막이었던 것만 같고 아쉬움이 사라지지 않아 힘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은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임신 가능성이 끊길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저를 힘들게 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자녀를 원한다는 기도도 하지 못한 채 저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을 거라면 이 마음을 부디 가져가주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마흔여덟의 어느 봄날, 결혼한 지 18년 만에 하나님께서 예준이를 보내주신 기적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드디어 오랜 시간의 수많은 중보와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그 때에, 저의 마음은 감사와 찬양이 먼저가 아닌, 노산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었습니다. ‘또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아홉 달 동안 아기도 나도 해낼 수 있을까?’ 염려하는 이렇게도 믿음이 없는 제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펼치기만 해도 약속의 말씀을 부어 주셨고 생각지 못한 분들을 통해 격려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마음을 올려드리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믿음을 간구하며 매일매일을 보냈고 제게 주셨던 동일

한 말씀으로 순과 공동체의 뜨거운 중보를 받고 조심스러운 초기를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제게 하나님은 신비한 생명의 창조주셨고 태 속의 아기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라던 선물을 받은 기쁨도 컸지만 연단만 계속되던 것 같은 시간을 지나고 저의 깊은 목마름을 아시고 마침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함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늦게 만났지만 예준이는 더 많은 기도와 축복을 받고 주치의 선생님이 생로병사의 비밀 ‘노산도 괜찮아’에 출연하자고 제의하실 만큼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또한 간증문을 쓰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한해 한해가 가

면서 울적한 마음을 올려드리던 늦가을에, 이제 매해 예준이의 기쁜 생일을 맞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하나님은 해답을 바로 주시지 않더라도 늘 함께하심을 보여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주시는 분,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에도 한 것으로 쳐주시는 아버지, 끝내 마른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모태에서부터 품고 계시는 하나님은 대체 얼마나 크신 분이실까요.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예준이와 이제 함께 생명길을 걸으며 그 크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노산도 괜찮아’가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아’입니다.



2025.
01

몽골 현지 사역자를 위한 CES 멘토스쿨 간증

04

CES International Leadership Training @Mongolia

2024년 12월 3일(화) - 12월 5일(목) / 제주명성아카데미하우스

몽골 현지 사역자를 위한 CES 멘토스쿨 간증

> 도카

제주 열방대학을 섬기는 도카입니다. 모든 주제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강의를 해주는 멘토의 마음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몽골 사람들에게 이 학교가 진행된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몽골로 돌아가면 교회에서 이 CES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 합니다. 준비하고 섬기고 수고해 주신 새로운교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 데기 (덴스마)

CES 학교에서 기독교 기본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학교에 참석하면서 영과 믿음으로 성장한 감사한 날들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멘토는 가르치면서 삶을 나누는 시간을 주고 우리를 세우고 안아주며 사랑으로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교회에 새로 온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세우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안아주고 들어주는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 아리웅

기독교 에센스라는 책을 처음 보고 “아, 아는 것들이네”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 멘토를 만나 한 팀이 되었고 멘토님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떨리고 많이 기도했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마치 저를 이처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CES를 하는 동안 아주 재미있었고 강의 내용은 아는 것들이었지만 새로운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 나라 (나랑게렐)

CES 강의를 듣기 시작했을 때 2003년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를 위해 중보 기도도 섬겼던 선생님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를 위해 또한 몽골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섬겼는지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소그룹을 하면서 저는 다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좋은 교회와 좋은 공동체와 가까이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일대일로 배웠던 것을 한 사람의 삶에 예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좋은 멘토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돌아가서 좋은 멘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동안 영과 육체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 바아란

빨리 와서 배우고 싶은 맘이 있었는데 가는 길이 멀었고 많은 영적을 싸움을 하면서 기도 가운데 싸우면서 왔습니다. 웬지 큰 목적을 위해 지금이 존재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르심과 소명을 다시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저는 제 뜻을 위해 제 목적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 예수님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함처럼 저도 그 한 사람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미카

CES를 하는 동안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는 길이 어려워져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목사님이 계속 가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정말 기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센스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 제 비전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 바른 길로 갈 때 누군가의 노력과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기독교에센스를 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몽골에 다시 돌아가서 12 주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같이 동행해서 기쁩니다.

> 예기

기독교 에센스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새로 온 사람들에게 맞는 교육이 없었고 또한 교회에 대하여, 신앙생활에 대하여 가르치는 기본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대일로 하면서 상대방의 멘토가 되어 주고 영적으로 영적 어머니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잘 들어주고 제 삶으로 그 사람에게 본이 되어 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기독교 에센스를 해야 이 유는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제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도 제자를 삼는 기독교 에센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제자훈련이 필요한 교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 바기

CES 책을 멘토와 함께 배우니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성장할 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몽골에 가서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에게 알려주어서 제자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로운교회의 CES 강의와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 어트경수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 다 있었습니다. 정확한 주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고 일대일로 하는 것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멘토들이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멘토와 멘티가 함께 하도록 책이 잘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3명의 멘티를 훈련시킬 겁니다. 준비된 멘토들이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계속 도울 것입니다.

> 울지사이항

기독교 에센스라는 책을 발견하고 읽어보니 기독교의 기본을 아주 잘 정확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곧 얼마 뒤에 기독교 에센스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아주 잘 준비를 하신 것 같고 자연이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돌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소, 음식, 강의와 섬겨 주시는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또한 멘토와 통역해 주는 분의 섬김들이 앞으로 제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알게 해 준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교회에서 매주 12 주제로 설교할 것입니다. 새로 온 사람들에게 일대일로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협력하는 교회들에게 가르칠 겁니다.

> 어용바트

저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주고 싶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싶은 목적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CES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제 안의 이해와 깨달음이 정리되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할 때 부족한 것이 많고 하나님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 엔흐바트

이번 제자훈련을 받기 전에 3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정말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와서 첫날, 첫 시간부터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CE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제자 훈련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미셸

CES 수업을 처음 듣기 전에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준비시켜 주실까라는 기대감과 멘토님들의 경험에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수업을 배우고 나서 몽골로 돌아가 배운 대로 잘 실행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CES 수업을 배울 때 모든 기독교인이 CES 같은 기독교 교리 기초 스쿨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주제들을 더 섬세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한 홍 목사님의 사역하시면서 쌓아온 경험, 인생에서 배운 간증, 좋은 예로 인해서 수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비전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제자양육을 하고 싶습니다. 6개월마다 멘티를 양육할 예정입니다.

> 태비나

저희 교회에게 정말 중요했던 제자훈련 교육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테렐지에서 할 때에는 집중을 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CES 책으로 다 배우니까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 조 멘토가 아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 안에 믿음의 기초가 다시 새롭게 되고 정리된 시간이었습니다.



2025.
01

2024 새로운교회 청년2부 가을수련회

파노라마 그리스도인의 초상화 (마 5:3-10)

일시: 2024년 11월 1일~3일 / 장소: 한국콜마 여주아카데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공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유할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청년2부 수련회 간증

05

1. 강예원A 청년 (청년2부)
2. 김소진 청년 (청년2부)
3. 변수영 청년 (청년2부)
4. 이환솔 청년 (청년2부)
5. 조하은A 청년 (청년2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던 청년2부 수련회

강예원A 청년 (청년2부)



2023년 11월 3일, 오랜 세월의 힘겨움 끝에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처음 맞이하는 가을... 누군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을 물으면 언제나 망설임 없이 대답하는 ‘가을’이었는데 올해의 가을은 반가워만 하기에 쓸쓸한 마음 또한 있었습니다.

수련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11월 3일 또한 다가왔기에 선뜻 신청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러다 교회 챔버팀 사역 중에 아빠가 천국의 하나님 곁에서 저의 교회생활을 기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런 아빠의 “하나님 잘 믿어라”라는 유언을 떠올리며 용기 내어 수련회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신청이 용기까지 내야 하는 일은 아니지만, 보기보다 MBTI의 I(내향적) 성향인 저에게는 40 평생 첫 교회 수련회였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제가

속한 순과 진 친구들 외에는 잘 알지 못하는 청년2부 새내기인지라 혹시라도 수련회 사이 아빠 생각에 눈물이 터질까 걱정하며 출발한 저는, 이럴 거면 걱정을 왜 했는지... 스스로 민망할 정도로 정말 많이 웃고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청년들의 팔복을 소망하며 기도로 이끌어주신 목사님과 센스 있고 친절함 준비팀, 모든 스텝 친구들, 늘 고마운 리더십 진장과 순장님들 그리고 저처럼 고민하다 용기 내어 신청한 형제자매들의 서로를 배려하는 헌신과 믿음,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청년2부를 졸업해야 하는 새내기 졸업생이지만 이번 수련회의 따뜻한 추억들을 안고, 언제나 돌아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시간들을 남기게 되어 청년부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물들이신 가을을 다시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던 청년2부 수련회

김소진 청년 (청년2부)



이번 수련회에서 진행된 목사님의 “팔복” 설교는 지금까지 치열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다가 잘못 등록된 거짓말들을 완전히 dismantling(해체)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10년 전 2013년 1월에 저는 강남 어느 카페에서 대학교 방학 때 오랜만에 만난 아빠와 데이 트하던 중 ‘가나’라는 나라에 몸집 작은 어린이들이 물고기 잡이 사업에 노동 착취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빠는 제 손을 붙잡아주었고 저는 그렇게 아빠와 함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같은 강남 거리에서 머릿속에 케이스를 잔뜩 정리하며 예민한 신경을 세우고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케이스 승인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순간순간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였습니다. 신기한 것은 실제로 케이스가 승인되고 업무처리가 너무 잘 되어도 행복하기보다 여전히 마음이 쫓기고 평안은 없이 내일은 또 같은 기도를 하며 쳇바퀴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함 속에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팔복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Beatitudes 혹은 “팔복” 설교는 많이 들어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라는 로직이 갑자기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어, 하나님이 나에게서 바라는 것이 완벽하고 일 처리 잘하라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쫓겨 살다 보니 하나님도 그것을 demanding(해체)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모세,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parables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언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설교 때 “OMG, I totally got it all wrong”하며 거짓된 어둠 가운데 빛이 켜지는 듯했고 하나님이 진짜로 나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replace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설교 후 저는 그동안 쌓인 하나님의 복에 대한 거짓된 로직을 버리고 성령이 진리로 제 머릿속을 새로 채워 주시길 기도하며 열정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진정한 감동이 있었는데 기도 중에 이 세상의 버림받은 연약한 아이들을 잊지 못하고 아파하는 제 마음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며 언젠가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일에 동참하게 해 주실 거라는 소망을 다시 주셨습니다. 월요일부터 다시 일로 돌아갔지만 이제 제 안에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의 소망이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 거짓된 그분에 대한 것들을 말쑥으로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되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나마 천국을 맛보게 해 준 수련회

변수영 청년 (청년2부)



저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손길로 인하여 아무리 육신이 지쳐 있었어도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반짝 살아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 집회에서 복에 대해 설교하시는 중 십자가에서 예수님 곁에 있던 강도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였고, 그 강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며, 그 강도에게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이 선포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선포된 희년은 정말 그 자체로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구약을 읽으며 ‘이 땅에 안식년과 희년이 제대로 선포되기만 했다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었을까? 가난과 기근이 이 땅에 없었을 텐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년을 선포하셨다니, 하나님께서도 안식년과 희년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설교 첫 본문이었던 시편 24편을 읽자마자 이유 없이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여호와와 산에 오를 수 없는 자가 주의 은혜로 주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었다는 감

격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를 버리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 나무에 오른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네 집에 반드시 유하여야 하겠다”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저에게도 이루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함께 시간을 나누는 모든 시간들이 천국과 같았습니다.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더욱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련회는 이 땅에서 잠시나마 천국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지칠지언정 끝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천국의 기억을 안고 다시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세상 한가운데, 제가 서 있는 그곳에 천국을 끌어당겨 살아낼 수 있게 하소서. 기도과 말씀의 문을 더욱 열어주소서. 말씀의 단맛을 한 번 맛본 자는 있어도 한 번만 맛본 자는 없습니다. 제 영혼을 적시는 말씀의 생명수가 마르지 않고 솟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

이환술 청년 (청년2부)



저는 모태신앙임에도 20대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유학과 직장 생활로 보내며 하나님과 멀어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본 생활에서 인종차별과 무시를 받지 않기 위

해 무리해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넓혀갔고, 성과를 내기 위해 밤새 쉬지 않으며, 저를 과시하기 위해 꾸미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노력으로도 제 안에서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에게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던 나날들이 쌓여가는 가운데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귀국과 동시에 공백 없이 바로 이직을 했기에 한국의 사회생활 적응과 바쁜 회사 일로 하나님과의 마주함을 다시 한번 미루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얻은 성과로 진급하고 자신감을 얻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퇴사를 하고 이직준비를 하던 도중 일본에서부터 자라왔던 공허함이 결국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번아웃을 통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더 불어 가족의 불화를 통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사람들과 만날 수 없게 되고 사회로 돌아갈 용기도 사라져 자신을 자책하며 홀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

었습니다.

그 와중에 현재 청년2부에 소속되어 있는 고등학교 동창의 제안으로 새로운교회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한 홍 목사님의 “벤엘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라는 말씀에 감동하여 미뤄왔던 하나님과의 마주함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마주함을 기초부터 다시 다져가던 와중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곧 복이다”라는 말씀에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기간 동안 채울 수 없었던 그 공허함이, 제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 속 인간관계, 성과, 물질, 모두 제 노력으로 이룩했고, 또한 이것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던 옛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다 보잘것없었던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을 받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간구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매 순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초상화를 그릴 수 있을까?

조하은A 청년 (청년2부)



이번 청년 2부 수련회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초상화 팔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등록교인으로 청년부 소속의 나이지만 환경과 상황을

타하며 그동안 청년부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일예배만을 섬기고 있었던 청년입니다. 사실 제 마음에는 깊고 어두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오늘은 눈이 떠졌으니 살고 내일은 별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2~3개월의 시간들을 어찌면 더 오랜 시간을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그때에, 언니의 “청년2부 수련회에 가 보고 싶네..”라는 고민을 들었고 언니를 핑계로 제 마음의 깊고 어두운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놓기 위해 참가 신청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청년부에 참석하지 않고 순이나 진과 같은 소속이 없으니 수련회에서 마음만 더 어려워지겠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은 기우였고, 반갑게 이름 부르며 맞아주시는 목사님과 운영팀, 수련회장에서 만들어주는 따뜻한 식사들과 편안하고 따뜻한 잠자리,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편견 없이 모든 형

제자매와 교제하고 함께하는 청년2부의 2박 3일은 어렵고 적응해야 하고 지루한 2박 3일이 아닌 딱 3시간짜리 행복한 영화를 본 것 같은 수련회였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어두움과 어려움을 기도시간에 마음껏 꺼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제 마음속에 아주아주 따뜻한 손이 심장을 감싸는 느낌을 받았고, 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소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째 날 저녁 기도회에서는 오직 제 마음만을 위해 기도했고, 둘째 날 저녁 기도회에서는 같은 마음에 어려움을 가진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간증문을 보는 청년부 소속이 아닌 청년들에게 청년부와 수련회에 참석하기를, 수련회에서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뜨거운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Semi-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세상에서 만나던 친구, 직장동료들과는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님들과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간증하고 싶습니다. 물론 마음의 어려움은 또 찾아오겠지만 마음의 어려움보다 뜨거웠던 기도시간과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잊지 않고 먼저 기억할 것을 다시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2025.
01

구도자 커피브레이크 간증

06

1. 오시윤 성도 (우면공동체)
2. 박재숙A 성도 (E강남공동체)
3. 박근지 성도 (W서초공동체)
4. 박희영 성도 (우면공동체)

커피브레이크를 마치며 나의 영적 성장을 발견하다!

오시윤 성도 (우면공동체)



드디어 설레임으로
기다렸던 두 번째 커피
브레이크~!!
역시나 기대만큼 풍
성하고 은혜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공
부와 함께 따뜻한 자매님들과의 나눔의 시
간은 각자의 삶 속에 녹아들어 지침서가
되어주었고 너도나도 각자의 삶에 적용했
던 이야기보따리를 꺼내며 한 주 한 주가
커피브레이크 안에서 더 단단한 믿음으로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함께였기
에 같이 웃기도, 울기도 하며 나눔이 풍성
해졌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특히 저에게 영적 훈육
을 받는 것 같이 당근과 채찍으로 다가왔

지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디테일하게 풀
어서 설명해 주시는 인도자님과 부인도자
님의 안내로 쉽게 이해가 되었고 야고보서
말씀 중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2:17)라는 구절이
두려움에서 당연함으로, 믿음에는 뿌리가,
행함에는 열매로 완성될 저의 영적 맑음을
기대하며 깊이로 뿌리내려 지기를 소원하
며 고백합니다.

벌써 커피브레이크의 시간은 마지막인 마
침표가 되어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저에
게 귀한 선물처럼 다가온 커피브레이크를
통해서 저의 참 믿음, 참 행함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점검받고 소망합니
다. 받은 값진 은혜에 보답하도록 쓰임 받
는 자리에서 주님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박재숙A 성도 (E강남공동체)



지난 여름, 저는 창세
기 2편 수요일커피브레
이크에 참여했었습니
다. 그때 제가 묵상하
지 못했던 부분을 나
눠 주신 조원들 덕분
에 다시 창세기를 읽
을 때 그 부분이 너무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구절마다 함께 나눴
던 것들이 기억나면서 커피브레이크를 통한
유익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생각했고
다시 커피브레이크가 시작되면 참여하고 싶
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
로운 커피브레이크 소식을 듣게 되어 신청하
려 했는데 저녁 시간이라서 선뜻 참여하기
가 어려워 너무 아쉬웠었는데 구도자 커피브
레이크 안내를 들었고 ‘드디어 기회가 왔군!’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커피브레이크는 ‘야고보서’에 대해 묵
상하며 6주간 나누었습니다. 매주 조모임 시
작 전에 목사님께서 그날 본문에 대한 배경
설명과 핵심구절에 대한 상세한 강해가 큰
도움이 되어 감사했고 조모임에서 나눈 여러
분들의 묵상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묵상을 나누던 중 “야고보서
는 하나님의 계보에 속한 자로 살 것인가, 마
귀의 계보에 속한 자로 살 것인가 결정하라
는 말씀인 것 같아요!”라는 부인도자님의 나
눔이 아직도 계속 강하게 뇌리에 남아있습니다.

이전까지 저에게 야고보서는 강한 지적과 권
면들로 조금은 부담스러움을 가지고 읽게 되
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커피브레이
크를 통해 장별로 나눠서 세세히 살펴보고
묵상하다 보니 그 꾸밈음 같던 말씀들이 더
이상은 두렵거나 거부감이 드는 말씀이 아니
라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안내서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에게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이려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유전자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인
내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선포이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모
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
인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영적 둔함으로 말씀을 읽으면서도 답답함
이 있던 저에게 커피브레이크는 하나님의 인
도하심을 따를 때 누리는 은혜로 ‘주의 말씀
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이 말씀이 절로 떠오르게 하
는 힘을 가졌습니다.

매주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신 인도자님,
부인도자님과 귀한 묵상을 나눠 주신 조원
분들 모두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분들도 커피브레이크를 통해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변화를 가져다주는 커피브레이크

박근지 성도 (W서초공동체)



매주 목요일 아침 일찍 서둘러서 교회로 향합니다. 커피 브레이크에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간증들이 나올까 생각하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러나 가는 길은 땀입니다. 운전대를 잡고 길고 긴 출근길 자동차 대열에 합류하면 갖가지 모양의 암체들이 나타납니다. 순간 순간 화가 나지만 참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뭘, 엄청 바쁜가 보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 순간 제 앞으로 너무 위험하게 차 한 대가 훅 들어옵니다. 너무 놀라 미처 경적소리도 못 내고 핸들을 짹 잡습니다. 그러나 제 입은 민첩하게 반응하여 욱하는 소리를 냅니다.

바로 다음 순간, 아, 하나님이 들으셨을 텐데... 아, 나는 언제 거룩한 크리스천이 되거나, 왜 매일 일어나는 이런 작은 일에서 조차 참지 못하고 즉각 반응을 하나 등등 자책이 뒤따릅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안 좋아집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러나 교회까지의 길은 멀고 땀입니다. 가다 서다 하는 동안 저는 왜 커피브레이크를 하러 이 먼 길을 가나 생

각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배경을 알게 되고 그런 맥락에서의 단어 뜻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조별 나눔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도 맥락을 바르게 잡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둘째, 인도자님과 부인도자님 그리고 조원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나누는 이야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동감하며 나눌 수 있을까요.

셋째, 하나님 말씀 속에 많이 있다 보면 저의 언어와 행실이 느리지만 그래도 변화해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다 서다를 지루하게 반복하지만 결국은 교회에 도착하는 것처럼. 열 번 화낼 것이 일곱 번, 다섯 번... 줄어듭니다. 화의 크기도 줄어듭니다 저도 모르게.

어느새 막힌 길들을 지나 조용한 가로수길로 접어들습니다. 커피브레이크를 계속 계속하고 싶습니다. 다음 커피브레이크를 하려면 봄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교회까지 가는 길처럼 저의 믿음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인 인내와 깨우침을 준 커피브레이크

박희영 성도 (우면공동체)



수요 커피브레이크를 하면서 구도자 커피브레이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초신자인 저에게 구도자 커피브레이크가 잘 맞을 것 같다는 인도자님 두 분의 말씀이 씨앗이 되었던 걸까요? 구도자 커피브레이크에 대한 저의 호기심이 무럭무럭 자라서 주일광고에 나왔을 때 엄청 관심이 생겼습니다. 새신자교육, 수요커브, 수요예배에 이어 또 한 번의 도전이라 기대도 되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호기심도 있었지만 순장님의 강추로 바로 신청했습니다.

구도자 커피브레이크가 더 쉬울 거라 하셨지만, 첫날 모임이 끝나고 든 생각은 ‘성경 말씀은 어느 구절도 쉬운(?) 내용은 없구나’였습니다. 첫 시작부터 내용이 심오했습니다. 욕심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고,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적당히 믿고 싶었습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마음을 의지하고,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

는 것을 바라며 기도만 적당히 하며 즐겁게 교회를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에 제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였는지 중간에 출석하기가 너무 싫어서 나가려다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에는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꾸역꾸역 걸어가 7층홀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오는 길이 힘들었다고 털어놓으니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는 인도자님과 조원들... 같이 기도해 줄 테니 꼭 이겨내고 다음 주에 보자고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무거웠던 마음이 가시고 기쁜 마음으로 다음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커피브레이크에는 개인적인 인내와 깨우침이 필요했나 봅니다.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인도자님, 함께 기도해주신 자매님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갈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2025.
01

마더와이즈 간증

07

1. 권유정 성도 (S강남공동체)
2. 박은경E 성도 (C강남공동체)
3. 이미선A 성도 (S강남공동체)



천국의 보석으로 드러질 수 있도록 달려가겠습니다

권유정 성도 (S강남공동체)



예전 순장님이 순원 중 한 분이 마더와이즈를 신청했다고 하시면서 아주 좋은 과정이니 다른 분들도 꼭 참여해 보라고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순장이 되면서 우리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 들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 순원의 대부분인 아기 엄마들에게 도움이 되겠지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수업부터 이것은 나를 위해 주님이 준비하신 시간임을 깨닫게 되면서 매일 목상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가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닌 저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며 그냥 머릿속에 주입되어온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속에 계신 분이셨고 저는 막연한 그 사랑에 영적인 목마름과 갈망 속에 주님을 찾았지만 저랑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계셨습니다. 마더와이즈 교재 속에 나온 레위와 룻의 사랑이 저를 신부로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주님과 사랑의 사랑을 느끼게 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베냐민의 모습은 이전에 느껴온 하나님 보다 더 인격적하시고 세심하시며 자상하신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레위가 룻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배려하고 전 인격을 사랑으로 품으며 인도해 가는 모습을 보며 제가 룻이 되어서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감

격 속에 빠져 들었습니다. 그러한 사랑 가운데 룻의 모습이 점점 성장해 가고 사랑스러워져 감을 보며 저 역시 주님 안에 거하며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명선언서를 작성하면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주님 나라의 금과 보석으로 드러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더와이즈 내 용들이 생각날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지난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과연 제가 천국의 금과 보석으로 드러지기 위해서 어떤 꽃대를 향해 달려가야 할까 생각해 보니, 제 삶의 꽃대는 늘 제가 정하고 제 뜻대로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열매도 그다지 많지 않을 거 같고 뭔가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늘 주님께 기도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 혼자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았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루만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날 하루를 최선을 다해 제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지 못했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더욱 정성껏 주님께 드리기로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재능을 갈고닦아서 언제까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의 피크타임이 아직 지나지 않았음에 감사하며 주님 주신 꽃대를 향해서 천국의 보석으로 드러질 수 있도록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길 원합니다

박은경E 성도 (C강남공동체)



우리 교회에서는 마더와이즈 과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우리 순원이 조장으로 섬기게 되어 순원들도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저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순장으로 섬기면서 주로 순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자신이 나눔에 대해 갈급해 있었고 인생의 전환점에 있는 저 또한 '회복'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제게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원들이 대부분 순장들을 알게 되었고 우리 조 안에서 풍성한 나눔이 있겠구나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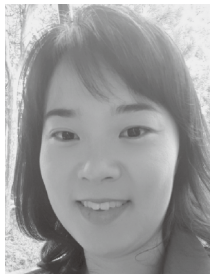
매주마다 유대인의 결혼식 과정을 통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아름다운 결혼식과 신방을 준비하고 계시고 신부 된 제가 어떻게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목상하고 조원들과 풍성히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결혼식 사진을 꺼내 보고 결혼식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보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결혼식은 바쁜 가운데 초스피드로 준비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대인의 결혼식의 정성스러운 준비 과정과 천국의 신방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사랑도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을 두고 일 년 동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응답을 받고 금반지와 에베소서 말씀이 적힌 카드와 꽃다발을 주며 저에게 수줍게 청혼을 했던 남편의 모습이 생각났

습니다. 남편은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기도로 우리의 결혼을 준비했고 결혼생활 동안 남편을 선택한 것에 대해 제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결혼이 필연임을 이야기하며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남편의 기도와 사랑이 실제이듯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천국의 심방을 준비하시는 것도 실재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저는 천국에 대하여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을 보니 뭐가 그리도 좋았는지 너무 활짝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 만날 날도 이렇게 활짝 웃고 우리 주님의 팔짱을 끼고 아름다운 신방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천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3분' 책의 어린이 버전 '천국은 진짜 있습니다' 그림책을 보며 그 아름다움을 목상하고 남편과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그때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자 함께 다짐해 보았습니다. '회복' 과정을 통해 저뿐 아니라 남편 또한 저를 통해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달려 나갈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보석들로 저를 한껏 꾸밀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책임을 지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매일 주님의 격려를 받으며 성실하게 신부로서 준비하여서 주님께 칭찬받으며 저를 위해 단장해 놓으신 그 신방으로 기쁘게 들어갈 것입니다. 이 소망이 저를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이미선A 성도 (S강남공동체)



새로운교회에 등록해서 다닌 지 십여년이 지났지만 집이 멀다는 핑계, 아이 양육의 핑계로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던 나날들, 주일이 아닌 평일에 교회에 간다는 건 생각하지 못하던 제게 같은 순 자매님께서 중학생 딸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함께 마더와이즈를 신청해보지 않겠냐고 하셔서 사춘기 아이를 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더와이즈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여유 있게 생각하고 한 시간 일찍 나왔는데 한 시간 반이나 걸려 첫날부터 지각을 했습니다. 시작 첫날부터 맘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역시 나에겐 무리였나? 마더와이즈는 솔직히 사춘기 아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컸기에 큰 기대감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첫 주의 묵상 가운데 누구의 엄마, 아내, 딸, 며느리가 아닌 온전히 저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주님, 왜 저를 마더와이즈 회복과정에 인도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기대감이 조금씩 제 안에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양가 부모님들의 질병으로 인한 염려, 자녀들의 양육 등 제가 오롯이 감당해야 할 상황들에 지쳐 주님께 온전히 시선을 두지 못한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매일의 묵상을 통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저를 위해 가장 귀한 전부를 주셨다는 것을 매주 더 깊이 깨닫고 알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관계에서 제가 회복되어야 할 부분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던 저는 제 문제들을 제가 해결하려 발버둥 치며, 해결되지 않은 일로 인해 오랜 시간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절 건져 주세요 하며 울며 기도하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주님께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수 있다”는 부분을 묵상하던 중에 기도 응답을 허락하셔서 오랫동안 걱정, 근심, 염려로 저를 힘들게 짓눌렀던 상황을 정말 단번에 해결하셔서 자유함을 경

험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원망, 제 뜻대로 따라오지 않는 자녀들, 부모님께 상처만 드렸던 지난 시간들이 생각나게 하시며 남편, 자녀, 부모님이 아닌 제가 문제였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가지고 그 후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제가 가장 아끼던 차를 급하게 처분하게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많이 아픈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제가 필요한 것을 먼저 쓰고 그 후에 남은 시간, 재정들을 드린 부분에 대해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아침밥을 지으시기 전에 쌀의 처음 한 컵을 떠서 기도하시며 귀하게 성미를 준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제게

주신 재정의 온전한 첫 십일조를 떼어 드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마더와이즈 회복과정으로 인도하시고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절 기뻐하시며 전부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전 그것을 외면하며 그 사랑을 의심하며 살아왔던 삶을 돌아봤을 때 언제든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회복과정 기간 동안 매 순간 너는 너무 귀해,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저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제 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2025.
01

2024 연말 러브 미니스트리 이야기

08

새로운교회 창립부터 시작된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풍성함과 은혜의 현장임을 경험합니다. 새로운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의 열매가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으로 이어지는 너무나 따뜻하고 포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을 맞이하여 공동체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이 새로운교회와 동역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나눔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홀 담임목사님과 러브 미니스트리 단체장 만남

담임목사님과 러브 미니스트리 단체장들과의 만남은 서로가 한마음을 품고 동역의 비전을 함께 세워가는 시간입니다. 새로운교회의 러브 미니스트리는 재정 지원을 하는 1차적 수동적 섬김이 아닌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함께 격려와 사랑을 나눔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사회적 기업과 단체들은 적은 금액을 지원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연례행사로서 생색내기 급급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창립 초기부터 새로운교회 오랜 동역을 하고 있는 많은 사역 단체들을 사랑과 정성 그리고 인격적인 나눔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교회가 하지 못하는 특별사역을 감당하는 단체들과 꾸준한 교제와 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사역의 어려움과 필요에 귀를 기울이며 더 나아가 사역 현장의 필요를 먼저 살피고 도와주는 사역의 방향성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위로와 격려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전달되고, 치열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힘겹게 사역을 이끌어가는 각 단체 대표들이 새로운교회를 통해 힘을 얻고 든든한 후원자로서 힘을 더해 주는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복지실천법인 세움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

재소자 자녀들의 아픔과 상처를 돌보며 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섬기는 사회복지실천법인 세움을 방문하여 300명의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뉴젠의 고등학생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소외되고 연약한 아이들을 향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기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하는 부모님이 순원들과 함께 참여하여 선물 포장 및 택배 발송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세움을 향한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은 뉴젠 자녀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고 새로운교회와 세움이 뜻깊은 연합으로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세대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은 세움 스텝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햇불트리니티신학교 외국인 학생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

햇불트리니티신학교 기숙사에 거주 중인 외국인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과 카드를 전달하였습니다. 러브 미니스트리 팀원들의 가정과 35명의 외국인 학생들을 매칭시켜서 2주간 기도로 준비하며 성별, 나이에 맞게 정성스럽게 선물과 카드를 준비하였습니다. 단순한 선물 전달이 아니라 이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한국 땅에서 외로이 공부하고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 있는 신학생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더 나아가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각 나라를 품으며 그 힘을 더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햇불트리니티 총장님과 외국인 학생 총괄 담당 교수님, 그리고 약 20명의 신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행사로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성도님들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와 정성으로 선물을 예쁘게 포장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참된 사랑과 섬김의 의미를 더해 주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 부모를 사랑으로 돌보는 킹메이커

지난 12월 21일(토)에는 청소년 부모들을 섬기는 킹메이커를 다녀왔습니다.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부, 2부로 나눠서 각각 20명씩 총 40명의 성도님들이 청소년 부모의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 방문을 통해 청소년과 아이 돌봄을 통해 기쁨으로 섬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의지할 곳이 없는 청소년 부모들이 지난 5월의 섬김에 이어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에버랜드를 다녀오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드리면서 킹메이커를 통해 주시는 든든한 후원과 사랑, 새로운교회 성도님들의 자상한 섬김으로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뉴젠 아이들이 4명 참석하였습니다.

성인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좋지만 뉴젠 자녀들이 형, 누나, 언니가 되어서 동생들을 돌보다 보니 오히려 아이들도 더욱 좋아하고 새로운교회 뉴젠 자녀들도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섬기다 보니 영적 추억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러브 미니스트리는 어른만의 사역이 아닌 청소년들도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할 수 있고 어른들의 칭찬과 사랑으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선물 중 가장 감사하고 기억에 남을 크리스마스 선물이예요! 아이들을 돌봐주신 덕분에 제가 온전히 저 자신으로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버랜드에서 한 아이의 엄마가 아닌, 오롯이 제 자신으로 돌아가 마음껏 즐길 수 있었던 그 순간들이 정말 소중한 추억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교회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하루 성탄절 선물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돌봄 해주시고 저희만의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변에 아이들 봐줄곳도 없어서 저랑 와이프 둘이 놀이공원 데이트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감사하게 성도님들께 아이들을 너무 잘 봐주셔서 정말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든거 같아요 매번 놀이동산가면 저희는 놀이기구 못타고 아이들 놀이기구 태워주고 이랬는데 정말 오랜만에 놀이기구도 타서 연애했때로 돌아간거 같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인천 돌아오니 아이들도 너무 즐겁게 놀았다고 해서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년도 얼마안남았지만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메이커 사역 후기]

2024년 사역을 마무리하며...

2025년에도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공동체와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면서 새로운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참된 사랑의 섬김과 헌신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역팀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섬김의 현장에서 더욱 기쁨을 누리고 연합과 사랑 그리고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 사역의 현장에 많은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2025년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n Him Who Strengthens Me



| 일시 |

2024년 12월 31일(화)-

2025년 3월 1일(토)

매주 화-토 오전 6시

| 장소 |

본당 및

각 기도스테이션(화-금)

문의 | 이사무엘 목사, 카톡ID : saerounchurch

1월
수요기도예배
소망

1/1

신정 (국가공휴일인 관계로 예배가 없습니다.)

1/8

이사무엘 목사

1/15

김대훈 목사

1/22

조은영 목사

1/29

설날 (국가공휴일인 관계로 예배가 없습니다.)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문의 조은영 목사 choeunyoung@saeroun.net¹²⁷



예배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
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6길 56 삼준빌딩 3층

TEL (02) 597-0691 **FAX** (02) 597-0601 **WEB** www.saeroun.net